

협회소식

협회장동정



일농수산세미나”(at센터)

- ▷ 1월 2일:시무식
- ▷ 1월 5일:한국농촌공사 창립6주년 기념식 및 현판식 (한국농촌공사)
- ▷ 1월 18일:”제35차 통

2005년 종무식 및 병술년 시무식



2005년 12월 30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지하 회의실에서 갖은 종무식에서 박순용 회장은 우유수급불안정, 3년째 쿼터제로 인한 원유가격 차등제 등 낙농산업이 많이 어려워서 회원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가 많이 힘든 한해였다고 말했다.

또, 병술년 새해를 여는 신년사에서 국가나, 협회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축산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로 질

병문제, 가축분뇨문제, 축산물의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이력제 및 원산지 표시 구분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유통문제 등, 축산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 IT산업에서 BT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축산업이라며 앞으로 축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2006년은 더욱더 준비하는 한해로 등록, 심사, 검정의 기반사업 확대에 노력하며 기초적 자료를 토대로 개량측면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세계적 변화에 발맞추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회원농가를 비롯한 양축가를 위해 노력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종돈검정관련 실무자협의회 개최



지난달 15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종돈검정 관련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고 현행 검정요령 개정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육질검정의 필요성에 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에서는 실시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비현실적 종돈능력 기준의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업계소식

TS대한제당 사료사업본부 *무지개사료* 잠실 본사 이전



2006년 1월 대한제당 사료사업본부가 인천공장에서 잠실 대한제당 빌딩으로 이전한다.

무지개사료는 사료공장의 해썬(HACCP)획득과 영국 BOCM PAULS사 등과 기술협력을 통한 신제품개발 등 제품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본사 이전으로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제당은 고 인승 설경동 회장이 회사를 세운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드림2010비전과 경영기본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 대표전화 02-410-6000

(주)중앙진테크, ABS 100만스트로 달성

미국과 캐나다에 소재하며 전 세계로 젓소 동결정액을 공급하고 있는 ABS사에서는최근기념비적인일을맞이하였다고밝혔다.최근다이하드

(Die-Hard)와 로이(Roy)가 종축으로서는 믿기 힘든 100만 스트로 생산의 위업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향후 2주내에 목표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특히 다이하드(29HO8538)는 체형이 우수하며, 서울우유 조합원 및 국내에도 수입 판매되었던 종모우로써 100만개 생산에 근소한 수량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100만개의 정액 생산은 전례적으로 사우쓰윈드(Southwind)와 컨빈서(Convincer)만이 달성했으며 생우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사양기술과 노력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고도 달성하기 힘든 수치로서 향후 ABS사의 글로벌 마케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중앙진테크:02-587-1388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 시상

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 시상지난 21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서카길 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사장 김기웅)은 지난 21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2005년 정기총회 및 카길 애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수상은 서울대 수의대 이문한 교수와 진주산업대 동물소재공학과 이철영 교수,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조정래 사무관이 차지했다. 수상자에게는 3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었으며, 단체부문은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로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고 밝혔다.

(주)우성사료, 2006 '대리점사업전진대회' 실시



▷ 2006 '대리점사업전진대회' 실시 “깨끗하고 행복한 축산세상 만들 것 결의”우성사료가 지난달 11일과 12일 양일간 대구 인터볼고호텔에서 '더 깨끗하게, 더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개최한 2006년 대리점사업전진대회에서 축산환경은 더욱 깨끗하게, 축산인은 더욱 행복하게 하겠다는 경영이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 경산공장 정부 HACCP 인증 획득 지난해 12월 12일 농림부로부터 경산공장 HACCP 인증을 획득하고 보다 깨끗한 배합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1월 HACCP팀 가동 후 10개월의 기간 동안 휴일도 반납하고 노사가 함께 노력해 이룩한 쾌거라고 전했다. 또한 아직 인증 받지 않은 공장과 흥성 연구농장, 고객농장의 HACCP 인증을 추진할 것이라며 양축가에게 믿을 줄 수 있는 우성사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사료, 이천공장 HACCP 인증획득

선진이 식육가공장과 제일종축에 이어 배합사료 이천공장도 정부로부터 HACCP 인증을 획

득하였다고 밝혔다. 선진사료 이천공장은 2004년 12월 추진팀을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사내의 교육과 시설보완 및 개선 등의 준비를 거쳐 인증서를 획득하였고, 축산물브랜드의 기본인 3통(중돈통일, 사료통일, 사양관리통일)의 전 단계에 걸친 HACCP chain system을 실현하게 되었으며 이에 축산식품의 안전한 생산부터 유통까지 식품체계 전반에 걸친 HACCP 도입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안전축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협사료, 가격 2.0 ~ 6.0% 긴급인하!

농협중앙회는 한미쇠고기수입협상 타결에 따라 양축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6일(월) 0시부터 비육사료 46개 전 품목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2%에서 최대 6%까지 긴급 인하했다고 밝혔다.

농협사료의 금번 가격인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 41%를 차지하고 있는 비육 사료가 해당되며, 물량으로는 연 136만톤에 해당한다. 농협사료의 금번 사료가격 인하조치로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양축농가 조합원들은 연간 약 130여억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농협사료는 금번 사료가격 긴급 인하 외에도 2004년도에 2차례, 2005년도에 4차례 인하한데 이어 이번까지 일곱 번째나 가격인하를 단행하는 셈이다.

농협사료가 7차에 걸친 가격인하 폭은 최고 20%에 이른다는 것이 농협사료 관계자의 설명이다.

낙진홍희, 올 우유 소비량 약간 늘어날듯

낙진회, 171만9,879t 전망..

그동안 감소했던 우유 소비량이 올해는 소폭 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낙농진흥회 우유 수급전망에 따르면 올해 시 우유 소비량은 171만9,879t으로 2005년 소비량인 170만2,051t(잠정 집계)보다 1만7,828t(1%)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경기성장 전망과 독일 월드컵 특수,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이 우유 소비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생산량은 줄면서 시유로 사용되지 못하고 남는 잉여율도 21.6%로 2005년의 23.7%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낙농진흥회는 올 원유 생산량을 잠정 집계된 2005년의 222만9,430t보다 1.6%(3만4,920t)가 줄어든 219만4,510t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회,
제 4회이사회 개최**



종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회(회장 조옥향)는 지난 5일 상오 11시 종축개량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중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검정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의원수를 지역 검정회의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매년 12월을 기준하여 회비를 납부 한 회원 10인당 1명씩 검

정회장의 추천을 받아 추가하는 등 정관 11조 일부 항목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검정중앙회 사업과 헬퍼사업, 공동구매사업 등 3가지 사업의 회계가 각각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3가지 사업의 회계를 단일회계로 통합 운영토록 했다.

또한 헬퍼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적자요인이 계속 발생하여 헬퍼출자금의 결손이 나고 있어 헬퍼이용요금을 현재 6만원인 기본료를 7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두당 착유우는 1천원에서 1천3백원으로, 기타우는 5백원에서 7백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그밖에 올해 살림살이는 농가 감소를 감안하여 검정중앙회 1억1천3백68만원과 헬퍼사업 1억1백42만원 등 모두 2억1천5백10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2006년 축산정책 4대 핵심키워드 -
방역 · 안전 · 친환경 · 브랜드**



농림부는 올 축산정책을 「사전에방 중심의 선진화된 가축 방역체계 구축,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생 · 안전성 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회복, 환

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고품질 우수브랜드」를 축산정책의 전략적 축으로 선정, 이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이 분야에 총 2천8백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는 금년도 축산분야 지원규모 9천9백41억원중 30% 가까이 차지하는 규모이다.

농림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투자할 주요사업에 따르면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체계 구축 분야에 2백60여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는 민간방역 활성화를 위한 가축질병근절사업 2백59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를 위해 2백2억여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중에는 광우병 발생 대비 사료생산라인 구분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과 사료안전성 강화를 위해 1백90여억원을 지원하고, 축산물도축가공업체에 1천7백82억원,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축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3백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는 조사료생산기반확대분야에 2백75억원, 친환경축사설치시범사업 38억원, 축산환경종합지도 2억원, 친환경축산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에 1억8천여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고품질우수축산물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2천1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에는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2천43억원을 지원하고, 축산물브랜드전시회에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축산물 자율수급조절 기능강화 및 농

가경영 안정망 확대를 위해 9백70억원,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사육기반 안정적 확보를 위해 7백67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신규사업에 개인육종활성화지원사업과 양봉산업육성,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가했고, 반면 송아지생산기지사업, 축산물등록지원사업은 종료했다. 또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사업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으로 통합했다.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과 시위문화

지난 1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한·미간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수입조건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여의도에서는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반대하는 축산농민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 두 뉴스의 현장은 성격상 서로 상극일 수 밖에 없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협상 결과 못지 않게 시위규모나 시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벌어 질 것인가가 주목됐다.

결과는 한·미 쇠고기 협상은 타결됐으며, 시위는 겨울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전국의 축산인들이 대거 참여해 평화적인 시위로 끝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선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전국한우협회가 지난 17일자 성명을 통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 청정국 지위도, 국민의 안전도 내 준 잘못된 결정'이라며 철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협상 대표단의 우리측 주장 관철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다.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한·미간 수입 조건 협상은 애당초 '뼈가 붙어 있는 고기(갈비)'를 놓고 벌일 한판의 줄다리기로 예상 됐었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 국내 축산업계는 수입조건에 갈비를 제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했고, 또 그런 협상결과를 도출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협상이라는 그 자체가 상대가 있는 만큼 협상 상대인 미국측의 갈비포함 주장이 이외로 만만찮았다는 것이다. 미국측의 주장이 만만찮았음은 협상결과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가 '실망스런 결과'라며, 쇠고기 완전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우리측 협상 대표단은 "수입조건에 갈비를 포함시킬 경우 협상대표는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지면서 시종일관 우리측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협상 뒷 얘기

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은 한·미 쇠고기 협상 재개 반대를 위한 축산인 시위에 대한 평가다. 시위 당일인 지난 13일에는 아침부터 겨울비가 내렸고, 시위를 주도한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지도부는 축산인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보일 것인지를 놓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시위 시작시간이 되자 전국에서 올라온 축산인들로 국회의사당 앞 시위현장은 금방 수입 재개 반대 프랭카드 물결로 뒤덮였고 축산인들의 함성은 서울 하늘을 가득 메웠다. 물론 시위 주최측의 예상 인원엔 미치지 못했지만 신문, TV등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이번 시위는 여느 시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각목이나 쇠파이프 등은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위 주최측의 질서유지 노력 등은 축산인들의 당당하면서도 성숙된 자세를 보여 주기에 충분했다.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시위 문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되고 있다.

이제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협상도, 수입재개 반대를 위한 시위도 끝난 상황에서 새로운 관심사는 앞으로 있을 한·미간 FTA 협상 등에서 우리측의 주장을 어떻게 관철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이에 대비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해나갈 것이냐는 것이다.

아무튼 한·미간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측 대표단이 보여줬던 우리 축산을 지키려는 정책적 의지와 쇠고기 수입 재개 반대 시위에서 보여줬던 축산인들의 성숙된 자세로 우리 앞에 놓인 현

안을 하나 하나 헤쳐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식품안전 행정체계 농림부로 일원화돼야 -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윤상익·여주축협장)는 성명서를 통해 “김치의 기생충 알 파동 이후 일각에서 또 다시 8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관리업무를 식약청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농축산인들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특정 부처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농축산식품의 안전을 저해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식품의 안전성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사전예방적 일관관리 체계(Farm to Table)로 관리할 때만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일관관리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업무를 특정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관관리 체계유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식약청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현재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식품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농림부가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 -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워크숍

‘축사부지 농지인정’ 중장기 과제로 남겨“농업인과 정부가 함께 농업·농촌을 살리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농지에서도 축산업을 자유롭게 하자는 데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 축산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 20일 농림부 주최로 열린 농업·농촌의 근본적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및 워크숍’에서 농업인단체장, 농업 관련 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은 같은 목소리로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리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축산인들의 염원사항인 농지에서도 축산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뒀으며, 축산물 수입 관세를 축산업에 투자도록 하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쌀협상 비준과정에서 국회에서 제기한 농업·농촌대책의 전면적 재검토 요구에 대해 그동안 농업계와 정부가 추진해 온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작업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그동안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을 위해 농림부는 실무T/F(농림부 차관 단장)를 구성,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농림부 담당국장과 농업인단체 사무총장급들로 구성된 분야별 실무협의회(축산, 농정 등 6개반)를 구성하여 농업계에서 제안하는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왔다.

이날 워크숍에서 축산분야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축산업소득세의 지방세 전환과 축산단순 가공식품·위탁사육비에 대한 부가세 면세, 축

산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축사 화재보험 및 가축공제보험 정부지원비율 확대, 학교우유 급식 목표 공표 및 제도화 등이다.

이 논의 내용 모두가 세제와 관련이 있거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 만큼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으로 이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농림부는 워크샵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논의된 내용을 농업·농촌종합대책 초안에 반영, 이후 관계부처협의를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쌀협상 국회 비준과정에서의 농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농업인,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3자협의기구가 구성되면 국회보고 이전에 3자협의기구에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종축개량 통해 전국 최고 브랜드로”

보은축협(조합장 조규운) 속리산황토한우 ‘조랑우랑’ 작목회(회장 최광연)는 지난 17일 한상혁 보은군 부군수, 김태석 충북농협지역본부 부본부장, 이우영 충북농업기술원장, 박광수 충주축협장, 정주성 제천단양축협장을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보은지역 단체장, 회원 등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및 브랜드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최광연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황토 조랑우랑 회원들은 브랜드 사료통일과 종축개량에 힘쓰면서 선진지 견학과 교육을 통해 기술수준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며 “특히 보은군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된 후 연간 5억원을 지원받은 조랑우랑 브랜드 사업을 회원들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로 더욱 발전시켜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보은축협 조규운 조합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축산물 판매장을 확장 이전해 축산물백화점을 개설, 판매망 확보에 주력하고 암소핵군사업을 통해 브랜드 밀소기반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조합에서 36억원을 농가에 지원해 전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속리산 황토한우 ‘조랑우랑’ 브랜드는 지난해 1월17일 77농가로 출범, 12월12일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98농가가 참여해 4천8백77두의 브랜드 한우를 키워내고 있다.

황토 조랑우랑 한우는 지난해 8월12일 농협청주물류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용판매장을 개설해 연말까지 1백여두를 출하한 결과 90%의 1등급 출현율로 소비자에게 우수성을 증명했다.

축산물 25개 브랜드 ‘소비자 인증’

한우 5개브랜드, 돼지 2개 브랜드 등 모두 7개의 축산물 브랜드가 소비자가 인증한 브랜드로 새로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해에 선정된 브랜드중 재심을 거쳐 올해 다시 소비자가 인증한 브랜드로 선정된 축산물 브랜드인 한우 브랜드 8개와 돼지 브랜드 5개를 합치면 ▲한우 브랜드 13개 ▲돼지 브랜드 12개가 소비자가 인증하는 축산물 브랜드가 됐다.

소비자시민의모임(회장 김재옥, 이하 소시민)은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발표회’를 개최

하고, 이들 브랜드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우수 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소비자단체에 감사를 표하며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환경이나 안전성 문제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우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축산인 여러분의 노력을 정성을 다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축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송도경 소시모 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브랜드 인증사업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단지 맛있는 고기, 싼 고기를 먹겠다는 알팍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이 사업을 통해 최고의 고기를 생산해 주는 농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생명산업을 더욱 육성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라고 강조했다.

또 소시모 강광파 이사는 지난 해 인증브랜드가 대다수 포함된데 대한 이유에 대해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쳤음에도 잘하는 곳은 여전히 잘 하더라. 그래서 또다시 인증을 하게됐다”고 설명하며, 이들 브랜드에 대한 홍보사업 활성화 등 소비자들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인증사업은 모두 3회의 엄격한 현지실사 과정을 거쳤으며, 혈통등록, 사료통일, 사료급여체계, 육질 1등급이상, 위생 및 안전성 등 19개 항목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검증과 생산에서 도축·가공, 유통판매까지를 모두 점검하는 등 완벽을 기한만큼 소시모 브랜드 인증 마크를 획득한 브랜드들의 자부심 또한 남달랐다.

수산업체 대표들은 하나같이 브랜드 활성화 및 고급육 생산과 품질균일화 등 모든 면에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인증사업에서 선정된 브랜드는 한우부문이 ▲남해화전한우 ▲대관령한우 ▲안성마춤한우 ▲양평개군한우 ▲장수한우 ▲팔공강우 ▲횡성한우 ▲상주감먹는한우 ▲순한한우 ▲섬진강뜨레한우 ▲함평천치한우 ▲합천황토한우 ▲홍천늘푸름한우 이상 13개 브랜드이고, 돼지부문이 ▲도드람포크 ▲동설맥포크 ▲문경약돌돼지 ▲실라리안 소백산싹돈 ▲의성마늘포크 ▲포크밸리 ▲프로포크 ▲크린포크 ▲하이포크 ▲한라산 도야지 ▲제주유채꽃도새기 ▲보성회천복돈 이상 12개 브랜드다.

홍천늘푸름한우, 흑석동이어 문정동에 2호 전문매장 개장

홍천늘푸름 한우가 최근 흑석동 1호점 개장에 이어 지난 18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늘푸름한우 전문매장 2호점(대표 정난조)을 개장했다. 특히 2호점 매장은 대단위 아파트를 끼고 있는 최고의 입지 조건으로 홍천 늘푸름한우 팬을 확보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흥병천 흥천축협장은 “고급육의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판매점이 없었던 것이 항상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올해 들어 서울 도심지에 전문매장이 연이어 들어서면서 달라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 전문매장의 발전이 곧 홍천 늘푸름한우의 발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안전한 홍천 늘푸름만의 고품질 한우고기생산 공급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전문매장의 번창을 기원했다.

해외소식

2006년도 ‘팔공상강우’ 사업 출범식 개최

대구축산농협(조합장 우효열)은 지난 17일 조합 사료공장 회의실에서 조합임직원과 팔공상강우 단지원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팔공상강우 브랜드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우효열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팔공상강우가 소비자시민모임이 선정한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획득했다”며 “브랜드사업의 성공여부는 혈통 · 사료 · 사양관리 통일이며 여기에 고품질 균일성 확보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 및 물량공급 능력 등 3가지를 이루어야 브랜드사업을 성공했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조합장은 “올해 지도인력 강화와 우수축출하등급장려금을 대폭 인상해 1++A등급 출현시 최고 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농림부 브랜드 경진대회 입상과 3통 달성을 위해 단지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일본, 도시 공단지역내 낙농목장 경영 화제

일본 아이치현의 시내 중심가 도시공단내에서 낙농목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목장은 당초 목장주변이 공단 개발지역으로 편입되며 이전이나 폐업을 권유받았으나 시청과 협의를 거쳐 분뇨와 오수처리를 철저히 하고 인접 산림지역용지를 확보하여 목장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데, 현재 이 목장에는 착유우 50두외에 타조, 토끼, 염소, 양, 닭등을 사육하며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시민들에게 휴식의 장소를 주는 도시안의 목장경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05년 최고 유량생산우 2만9천527kg 생산

‘05년도 365일 유량기준 일본내 최고 유량생산우는 북해도 오비히로시에서 사육되고 있는 “와이케이 테이 테체 그루프”라는 젖소로 2만9천527kg을 생산한 것으로 일본 홀스타인협회가 발표하였다. 이 젖소를 생산한 어미소 ‘아만다’는 일본내 생애 최고 유량 생산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생애 6산동안 2만kg의 유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협회자료에 따르면 ‘05년도 일본내 유량 2만kg을 생산한 젖소는 모두 27두로 ‘04년도에 비해 9두가 늘었으며 모두 북해도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물소 · 야크 아이스크림 시판 허용검토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물소나 야크와 같은 특이 유용동물의 아이스크림 시판 허용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이번 개정에는 이들 외에 양이나 유산양은 물론 사슴 등에서 생산한 젖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조치는 국제 아이스크림협회의 권고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낙농업계를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에게 외국산 특이 우유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표적인 예로 인도의 물소 우유가 대량 수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물소우유의 수입시 위생문제는 물론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한 식품을 빼앗는다는 도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 체결때 농업피해 치명적”

농산물 생산 감소액 2조~8조원 <농협조사연구소 보고>



정부 일각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임 박설이 흘러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농축산물 생산 감소액은 2조~8 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액 1,170억~1,295억원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생산감소액 648억~1,122억원과 비교해 수십배에 달하는 규모로,

뚜렷한 대책 수립 없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경우 국내 농업이 입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지적됐다.

농협조사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한·미 FTA 체결시 국내 농업부문의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산 농·축산물의 가격이 국산과 비교해 대부분의 품목에서 매우 낮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입증가 예상 품목으로는 쌀과 옥수수·감자·대두·양파·토마토주스·신선포도·신선오렌지·과실주스·쇠고기·삼겹살·닭고기·유제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은 양자간 협상이므로 쌀시장 개방문제도 원칙적으로 협상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저지방 우유 고혈압 예방에 도움

하루 1~3컵 마시면 발증 비율 감소

저지방 우유를 매일 1~3컵 마시면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 보고서가 미국 임상 영양지(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11월 호에 발표됐다.

스페인 나바라대학 연구진은 미국 하버드공중보건대학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스페인에서 고혈압과 심장 혈관 질환이 없는 5880명의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저지방 유제품 및 전지 유제품과 고혈압증과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연구(전향적 연구)를 평균 27개월 동안 실시했다. 피험자들은 하루에 1~3회 낙농 제품을 섭취했다.

연구 결과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한 피험자들은 전지 유제품 섭취군이나 다른 식품 섭취군에 비해 고혈압증을 일으킨 비율이 낮았다.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한 피험자들의 92%는 저지방 우유를 마신 예였다. 전지 유제품 섭취와 고혈압증 발증 사이에도 유의미한 상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스페인 연구진의 연구 결과는 저지방 우유(또는 유제품)의 고혈압 예방 가능성을 확인한 여러 연구 성과들 중의 하나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식사로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조사하는 DASH(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연구에서도 식사와 함께 저지방 우유(또는 유제품)를 3회 섭취하면서 과일과 야채를 8~9회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른 연구들에선 우유에 들어 있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영양소가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2005년 미국 식사 지침(2005 U.S. Dietary Guidelines)과 마이피라미드(MyPyramid)는 미국인들에게 매일 식사에서 저지방 우유(또는 유제품)를 적어도 3회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유로 칼슘 칼륨 마스네슘을 포함한 9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흑한에 젖소 유두 방치시 유방염 증가

흑한에 젖소 유두를 방치하여 피부조직이 터지게 되면 세균감염율이 높아져 유방염이나 체세포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 사우스다코다 주립대학 연구진이 발표하였다. 특히 흑한시 유두에 직접적인 동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차가운 바람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밖에 온도 저하 정도, 분만우의 유방부종여부, 착유 후 유두내 수분 잔류 여부등이 겨울철 유두의 피부를 터지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흑한시에는 착유후 유두를 잘 건조시키고, 착유실과 우사사이 이동시 강풍에 노출 될 경우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라놀린이나 카프릭산 같은 피부 연화제가 첨가된 유두침지액을 사용하며, 특히 분만우에 유방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유두내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위험하므로 침지액에 30초간 충분히 유두를 담근후 잘 말리도록 하고, 우사내 바닥을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미국, 유기농 전통목장보다 수익성이 좋지 않다

미국 북동부 메인주, 버몬트주 유기농 목장들의 수익성이 전통적인 낙농목장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버몬트 대학 연구진이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버몬트주에서 유기농을 하는 13개 목장과 메인주의 17개 목장 등 총 30개 목장이 조사되었는데, 이들 목장의 '04년도 자산가치는 유기사료의 가격 인상과 유류대 인상 등으로 약 3%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버몬트 주에는 1년에 20여 농가가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해 3년간의 전환기 사양방식으로 바꾸고 있는데 지난 93년도에 최초의 유기목장이 지정된 이래 현재 96개 유기목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농가 단체들은 유기우유의 유가를 현실화하여 현재 1백 파운드당 18달러

수준인 유기농 우유가격을 26달러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스리랑카에 유가공장 건설 지원

인도 국가낙농개발청은 인근 스리랑카에 낙농가들이 마을단위의 낙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가공공장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유가공공장 건설의 재원은 세계은행 자금을 활용할 예정인데 스리랑카 농촌개발청과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인도는 스리랑카에 유가공장 운영은 물론 마을단위 낙농목장의 우유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유기하락으로 낙농업 위기

베트남 유제품 가격의 전반적 하락이 2010년까지 연간 1백만톤의 우유를 생산하려는 야심찬 정부 계획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연간 소요량의 20% 수준인 19만7천톤의 우유를 생산해 4천7백만불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낮은 유가로 많은 낙농가들이 투자비 회수를 감당 못해 폐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료용 건조가격이 많이 올라 원가 부담이 되어 베트남 하노이 근처의 대표적인 낙농지역인 푸동지역의 낙농가수가 최근 5백60호에서 4백48호로 줄어든 것으로 발표됐다. 한편 유럽 체들은 자국산 우유의 품질이 좋지 않다며 낮은 유대가격을 농가에 지불하고 원유 부족분은 외국산 분유를 높은 가격에 수입해 자국산 우유와 혼합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베트남 낙농업의 발전차질은 낙농가들이 기술이나 수의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지난 '02년에서 '03년까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무분별하게 젖소를 도입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는 '05년 10월 현재 계획대비 4천두가 초과한 10만4천1백20두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낙농가수는 27.8%가 늘어났으나 전체 사육두수의 94%를 1만9천8백5농가가 사육하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장쑤성 등 2곳 또 구제역 발생

중국 닝샤(寧夏) 후이족자치구 중웨이(中衛)시와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시에서 바이러스성 가축 전염병인 아시아-1형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중국 농업부가 16일 발표했다.

농업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닝샤자치구 쉬안허(宣和)촌에서 소 2마리가 잇몸이 굵고 혀에 수포가 발생하는 증세를 보이다 1마리가 폐사해 자치구 수의당국의 초진과 국가구제역 참모실험실 검진을 통해 15일 아시아-1형 구제역으로 확인했다.

또 장쑤성 베이거우(北溝)촌에서는 소 20마리가 거품 섞인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여 성 수의당국 초진에 이어 구제역참모실험실의 검진 결과 16일 아시아-1형 구제역으로 밝혀졌다. 구제역 발생 후 닝샤자치구는 발병 지역 소 89마리와 양 110마리, 장쑤성은 소 110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농업부는 구제역 처리 전문팀을 현지에 보내 닝샤자치구·장쑤성 정부와 함께 검역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중국 산둥(山東)성 성도인(濟南)시 창칭(長淸)구의 한 소 사육장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25일까지 모두 48마리의 소가 아시아-1형 구제역에 걸려 폐사했다.